

민생경제·관광 활력 찾는다

익산시, 일자리 창출·신산업 발굴로 미래산업 육성 기틀 마련

익산시는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고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500만 관광객도시의 기틀을 다진다.

경제관광국은 지난 29일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신성장동력 사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먼저,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 중 다양한 공공 일자리사업을 집중 추진해 시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취업을 계고에 힘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보증과 이자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홀로그램 산업을 유치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홀로그램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핵심기술 개발, 홀로그램 실증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전자부품 산업, ICT 산업



익산시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홀로그램 산업을 유치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지역산업 기반을 다진다.

이밖에도 소재, 부품, 장비 등 첨단 기술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100년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462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모두 건강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연면적 4,719㎡ 규모로 건립되는 서부다목적 체육관은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수준높은 체육 시설을 갖추고 올 3월 개관 예정이며 마동 테니스공원은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종합운동장 내 건립되는 반다비(장애인) 국민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는 2022년 상반기 완공된다.

이밖용 경제관광국장은 “지역경제 반등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청년일자리사업 ‘시동’

취업지원·청년수당·지역정착지원 등 추진

군산시가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에 시동을 걸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청년 고용창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년고용기업에 인건비지원, 미취업 청년에 구직활동비와 일경험 등 다각적인 시책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기업에는 최대 1년간 매월 50~65만원을 지원하며, 참여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수습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가능성을 높여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형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50만원씩 최대 6회를 지원해 미취업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만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50%이하 군산청년 100명을 상하반기(3월, 7월 예정)에 나눠 선정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청년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인 ‘전북 청년지역 정착지원사업’은 농업, 제조업 중소기업, 문화예술분야 등 7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5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건설기계, 군산 대표브랜드로 도약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지원 시험연구센터 구축 추진

건설기계 산업이 또 다른 군산의 대표브랜드로 도약할 것으로 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부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와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과 연계한 건설기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시험연구센터와 실증시험동을 구축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2년간 국비 42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해 신뢰성 평가장비 9종과 시험연구센터·실증시험동을 새만금 산업단지 내 포면에 각각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험연구센터와 실증시험동은 올해 5월 착공해 오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며, 대형 건설기계 컨트롤러 성능평가장비 2종과 내구성 수명 평가장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다이어트 ‘전국 최대’ 특별이벤트

2월 100만원 충전 시장 및 골목상권서 사용뎌 총 21만원 혜택

익산시는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익산다이어트 로움을 활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월 설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이어트용 개인별 인센티브 적용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2배 확대 운영하는 설명절 특별이벤트를 시행한다.

익산다이어트움을 2월 한 달 동안 100만원을 충전 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하면 총 21만원(충전시 10% 10만원,페이백 10% 10만원,이벤트 당첨금 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당 2명이 다이어트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42만원의 설명절 특별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다이어트 카드 이용) 인증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지역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점에서 익산다이어트 카드를 이용하여 3만원 이상 결제한 후 익산시청 홈페이지, SNS 등에 접속하여 인증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면 선착순 1천명에게 다이어트 적립금으로 1만원을 충전 지급하며 적립금은 2월 29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달 28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결산안 1조4,139억7,200만원을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검토과정을 거쳐 올라온 당초 예산안 1조4,128억2,700만원보다 11억4,500만원(0.08%)을 증액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1년도 내부유보금과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활용하여 증액 편성했다.

세입 예산은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억2,200만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7억6,4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1억 5,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1억4,5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세출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2억2,700만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2억2,200만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29억2,700만원,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처리 118억4,400만원으로 21년도 예산안 자체사업 삭감액을 활용하여 증액 편성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 '농민 공익수당' 지원

익산시가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지난해 지급대상이었던 농·임업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를 추가해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급 대상자 1만1천여 농가에서 올해는 1만2천여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신재생에너지로 기후 변화 위기 극복

군산시, 새만금에너지와 신설 체계적 대응 기틀 마련

군산시는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만금에 대한 각종 정책과 개발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시민투자를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난해 6월, 발전공기업과 협약을 체결했고, 10월,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EPC사를 선정했다. 현재는 EPC 계약 절차 마무리 단계로 미군 전과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올해 3월 경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내에 시 최초의 시민참여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더불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올해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센터 등이 줄줄이 설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최초로 개최되는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홍보하고, 지역내 인식을 전환하는 교류의 장으로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및 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8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자하여 주택 1,182가구의 공공청사 28개소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마을 창고 등 마을 공유재산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농가 소득증대 등 재생에너지 사용 만족도 제고에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취약 계층 대상의 고효율 조명교체사업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1월, ‘새만금에너지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사업과 새만금 정책과 각종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관련 한법소원심판 청구 등 자치권 회복에 지속 대응하면서 새만금권역 통합관리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